



우 이 형

1979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2 : 경희대학교 치대 보철과 전공의 수료

1988 : 경희대학교 치의학 박사

현 재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보철 치료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생물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화있는 보철 수복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구강내에서 기능적인 수복물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생물학적 그 중에서도 특히 치주적인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미성은 물론이고 기능과 건강도 보장되어야 하며 양호하였던 구강 청결 상태가 새로 보철물 장착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던 치주 치료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는 보철물 제작시에 치아-치은 영역, 치간공극, 가공치의 형태 및 교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강연에서는

1. 변연과 치은관계
2. 치간 공극과 인접면
3. 치경부의 협-설면 형태
4. 점막과 가공치의 관계
5. 교합형태를 중심으로 치주적인 문제점을 지닌 증례의 고정성 보철을 이용한 치료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함께 논하고자 한다.